

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 “다시 뛰는 보성 3·6·5로 중단 없는 발전 이끌겠다”

〈3대 SOC·600사업·5대 목표〉

## 김철우 보성군수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을 실현해 더 품위 있고 발전된 모습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6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을 실현시켜 더 품위 있고 발전된 모습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재선에 성공한 김 군수는 “보성의 이미지와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향상됐다”며 “민선 8기 슬로건인 ‘다시 뛰는 보성 3·6·5’를 통해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3대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를 완성도 있게 추진하고, 민선 7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온 ‘보성600 사업’을 행정 전 분야로 확대하고, 복지·농림축산·문화·관광 등 5대 분야의 핵심 목표를 새롭게 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재선이라 감회가 남 다를 것 같은데.

▲ 민선 7기에 이어 8기에도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보성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신 보성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보성군 800여 공직자와 함께

## 생활·산업·관광SOC 추진...MZ세대 관광상품·야간 관광 활성화 보성600사업 행정 전분야 확대...임기 내 예산 1조원 시대 열 것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특히 올해 보성군이 영호남 9개 시군이 함께 하는 남해안남동권협의회 회장군이 됐고,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무총장 자리를 맡게 됐다. 그만큼 책임도 커졌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다. 민선 7기 동안 다져온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주변 지역들과 함께 더 큰 일을 해내겠다.

“SOC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했다. 계획은?”

▲ SOC프로젝트는 민선 7기부터 역점 추진해 온 사업이다. 보성군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민선 8기 슬로건은 ‘다시 뛰는 보성 365’로 정했다. 세부적인 3대 SOC프로젝트 실행 방안도 담고 있다. 특히 보성군만의 개성을 보여주고, 타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화 사업들로 구성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생활SOC, 산업SOC, 관광SOC 등 3대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보성·별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보성을 도시가스 공급, 경전선 KTX 이음, 조성 제2농공단지, 율포항 국가 어항

승격, 율포해양레저 관광거점 사업, 여자만 국가 갯벌 해양정원 조성사업, 별교·장도 간 통합관광 테마로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민선 7기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보성600사업을 행정 전분야로 확대하는 등 600사업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5대 핵심목표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광 마케팅 강화와 인프라 확충 복안은.”

▲ 현재 ‘보성·물들’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MZ세대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여행 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쓰겠다. 현재 광주에서 출발하는 ‘보성의 진수’라는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와 체험관광을 연계하는 코스로 진행되며, 특히 울 부에 운영한 율포해변에서 즐기는 캠프(캠핑과 피크닉의 합성어)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았다. 보성의 차, 소리, 문학 등의 자원을 활용한 가을상품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불이 꺼지지 않는 보성 경제”를 위해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통합축제 개최로 지역 상권에



확실한 낙수효과를 만들어 내겠다. 관광 인프라도 강화하겠다. 구들장 힐파크 조성, 보성 비봉 해양관광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관광 거점을 만들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겠다.

“임기 내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 민선 7기 보성군수로 재임하면서 열약한 지

방 살림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부처, 국회 등 사업유치, 예산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땀 흘려 2018년 당선 당시 5500억원이었던 예산이 2021년에는 25.6%가 증가해 7030억원을 기록했다.

보성군 개청 이래 최초로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최종예산은 77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민선 7기 4년간 약 2200억원가량 살림이 늘어났다.

민선 8기에도 이 추세로 간다면 보성군 예산 1조원 시대를 무리 없이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보성군에 반드시 필요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연계사업도 꾸준히 업데이트할 생각이다.

“군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지난 4년간 우리 군민의 화합과 참여 속에 정말 많은 성취와 발전을 이뤘다. 보성이 변화했고, 보성의 이미지와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향상됐다. 민선 8기는 보다 품위 있고, 발전된 보성의 모습을 완성할 것이다. 더욱 힘있게 보성 발전을 견인하겠다.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랑하는 고향 보성, 보성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올해 토요일상설 락(樂) 상반기 공연에서는 놀부가 창극 등의 퓨전 공연이 펼쳐졌다. (보성군 제공)

## 판소리성지서 ‘토요상설 락(樂)’ 만나요

### 창극·무용·악기 연주 등 다양

보성군이 오는 12월 3일까지 판소리성지에서 ‘토요상설 락(樂)’ 하반기 공연을 운영한다.

‘남도예르네상스’ 시군특화사업 공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매주 토요일 보성판소리성지에서 오후 3시부터 4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소리꾼, 판소리명창, 전통예인, 판소리 이수자 등이 출연해 전통판소리 공연은 물론 대중의 공감감을 이끌어 낼 창극, 퓨전극, 전통무용, 악기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하반기 공연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판소리성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보성판소리성지’ 채널에서 동시 송출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우리 가락을 좀 더 쉽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판소리성지가 보성소리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장소로서 나아가 전남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성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보성군, 새 구강 진료차로 마을 누빈다

### 치과 의료장비·휠체어 리프트 등 갖춰

보성군이 새 구강 진료 차량으로 마을 곳곳을 누빈고 있다.

보성군은 올해 새로 구강진료차량을 구입해 9월부터 치과 방문이 힘든 주민들을 위한 방문 진료로 시작했다. 새로운 구강진료 차량은 34인승 버스 치과 의료장비와 휠체어 리프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2억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구강 진료 차량을 교체했다. 새로운 구강진료 차량은 34인승 버스 치과 의료장비와 휠체어 리프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존 차량은 지난 2010년에 구입해 10년 넘게 운영해 오면서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

군은 해당 차량을 이용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지역 및 초등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찾아 치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예방중심의 치과 진료와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의 진료 서비스를 보다 쾌적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새로운 구강 진료 차량 확보로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추석 24시간 종합상황실

### 보성군, 9~12일

보성군이 귀성객과 지역민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에는 본청 8개 반 69명, 12개 읍면 48명 등 총 117명이 근무한다. 코로나19 방역, 교통·물가·연료공급, 가족방역, 환경, 보건, 재해·재난·안전 등 8개 분야를 관리한다.

보성군이 관리하는 각종시설 16곳에는 4개 부서 252명의 근무 인력을 투입한다. 율포해수욕장센터·보성작은영화관·제암산자연휴양림·전남권환경성질합 예방관리센터·비봉공룡공원 등은 추석 당일에도 휴무 없이 운영한다.

특히 보건소·보건진료소·종합방역 등 응급의료 기관 진료 대책을 통해 응급실 운영과 구급차 대기 등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당면약국 지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과 보성사랑상품권 이용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역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본부를 설치해 수도권과 대도시 향수 등을 대상으로 고향 농특산물 판촉 활동도 펼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2년 9월호

2022년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도시벽화

### 회색도시에 색을 칠하다

- 무뎠던 도시 깨우는 화사한 승결
- 광주의 대표 벽화거리가 담은 이야기들
- 개성있는 그림, 행복한 이야기
- 사랑받는 '핫 플레이스' 벽화

---

### 美路 味路

즐거워 앉은 섬들의 합창  
남해안의 미향, 여수

---

### GWANGJU TOUR

#9월 광주여행  
#무등산 아트밸리 #익재미술관  
#전통문화관 #무등현대미술관 #드림미술관  
#국문미술관

## 박하선

“역사가 놓친 진실을 찾아 기록합니다”

회제의 전시 - 광주시립미술관

‘영원을 빛은, 권진규’전  
‘이상’과 ‘영원’을 추구한  
구도자적 예술세계를 만나다

문화의 품은 건축물①  
건축이 예술을 만나 빛나는  
서울 사비나미술관

영영성 화백의 아메리카 그림 여행②  
대자연의 승결과 마야,  
잉카 문명의 흔적을 만나다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③  
고운 최치원 배향  
정읍 무성서원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④  
파리서 석공 하다 조각 느낀 문신  
바지락 먹고 미각 키워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⑤  
영화 ‘색, 계와  
브람스의 모음곡 ‘Op.118의 2번’